

일

글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吳榮大씨 —.

약관 21세에 교육계에 투신한 이후 26세에 용약 교장선생님으로 발탁되어 청년 교장으로서의 면목을 과시한 吳榮大국장이시다.

5개市, 22개郡, 1개출장소 등 25개 교육청에 1천4백82개 학교, 1백8만4천명의 학생들의 학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吳국장은 그의 40년동안의 교직생활을 통한 교육 철학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교육계에 투신할때만 해도 일제하에 있었을때였지요. 저의 신념은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일제하에서 독립하려면 첫째 제2세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출발된 교육자 생활이 어언 40년이 흘렀지요. 그동안의 苦樂은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결론은 보람이 있는 인생을 영위했다고 생각해요.』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吳榮大씨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나의 교육座右銘은 오로지 청념결백, 용약매진을 信念으로 살아왔어요. 그리하여 우스운 이야기지만 나의 별명이 “불도져”랍니다. 하하하하.』

이야기하는 동안 吳국장의 안경테 넘어로는 어떤 의지의 사나이같은 굳은 의지가 엿보여서 한결 기자의 마음이 믿음직스럽다.

— 전라남도 교육행정의 특색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남의 교육목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어서 “先進祖國 창조에 寄與하는 유능한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국민들의 자질함양을 들 수 있지요. 국민의 기초 자질이 높아지지 않으면 튼튼한 인재양성은 힘이 듭니다. 둘째 학생의 학력향상, 셋째 존경받는 교사상의 定立, 넷째 학교체육의 강화, 다섯째 교육여건의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남교육의 중점시책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체계적인 훈련활동의 강화라던가 면학분위기의 조성, 과학적



사진 : 기자 및 기협전남지부.간부와 대담하는 吳 榮 大學무국장(中央)

탐구력의 신장, 투철한 국가관 교육관의 확립, 교직자들의 전문성 제고, 기초체력의 신장,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邑面고등학교의 육성 등에 중점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가 중점사업으로 펼치는 학생들의 보건교육 및 보건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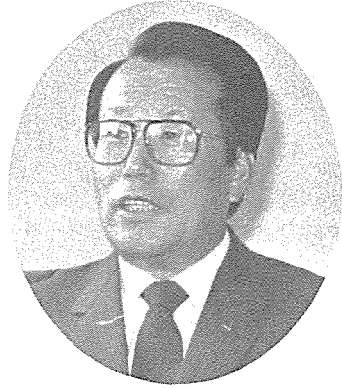
『첫째, 건강위생 생활의 습관화입니다. 학생들에게 신체 청결 및 규칙생활을 지도하고 전염병과 계절병의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둘째, 학생들을 위한 위생시설의 정비입니다. 즉 주위에 있는 수도 우물 변소 등을 정비하는것입니다.

기타 양호교사 기능의 활성화라던가, 식생활 개선, 급식학교 운영의 충실화 등을 역점 사업으로 꼽을 수 있지요.』

— 학생들의 春秋 기생충검사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전라남도는 오지 벽지 특히 수많은 도서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도 불편한 곳이 많고 위생관계가 좋지 못한 도서도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볼 때 학생들의 기생충 검사야말로 보건 위생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기초적인 건강이 제일이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기생충 감염율이 많이 저하가 되었으니까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남만은 만병의 근원인 기생충을 말끔히 몰아내어 교육목표에도 있듯이 기초체력의 신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년 2회의 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힘주어 이야기하는 吳榮大국장의 말씀에서 기자는 역시 “불도져 국장이구나”를 실감하고 있었다.

— 3년전에 발족한 건강관리협회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健協의 발족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요. 현대병인 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간염 등으로 인한 사망율이 부쩍 늘어나서 의학 예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어린이 심장병, 어린이 당뇨병 등 무시 못할 병들이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력장 시험이나 운동도중 갑자기 심장이 약해 쓰러지는 학생들이 종종 나타나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고 미리 치료토록 권장하고 알려주는 곳이 바로 健協의 검사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면에서 健協의 발족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전남 교육위원회에서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도내의 초 중등 학생들에게 간염 및 심장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해 健協과 협의하여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건협에서 제공하는 순회 검진차량을 이용토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놀라운 吳국장의 底力이었다. 이처럼 제2세 국민의 건강을 위해 先進 全南답게 무엇인가를 보여준 일면이었다.

가족·학교·학생들의 三位一體를 부르짖는 吳국장은 교직자 가족의 풍토조성을 위해 선봉장으로 나서기도 하는 열렬한 전남의 先頭走者이기도 하다.

◎…조선대학교 법과를 졸업한후 동 대학원 졸업, 시 군 교육장, 전남 체육고등학교장, 충의교육 원장 등을 두루 역임, 현재에 이름. 부인 姜英姬여사와의 사이에 3男3女. 취미는 테니스 등산 축구 등 스포츠에 있어선 만능 선수.